

동향

June 2026 No.4

캐나다, 모두를 위한 AI 국가 전략 발표

김민진 부연구위원

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공지능정책연구실

캐나다, 모두를 위한 AI 국가 전략 발표

김민진 부연구위원

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공지능정책연구실, minjinkim@kisdi.re.kr

요약

- 2026년 6월 4일, 캐나다는 새로운 국가 AI 전략 「모두를 위한 AI(AI for All)」를 발표
* ISED(2026), “Canada’s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: AI for All”, Cat. No. lu4-458/2026E-PDF
- 캐나다는 세계적 AI 분야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도입이 더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, 향후 5년간 신규 법안·투자·프로그램을 추진
 - 전략은 신뢰(Pillar 1·6)·기회(Pillar 2·3)·주권(Pillar 4·5)의 3대 축 아래 6대 Pillar로 구성
 - 신뢰는 AI 도입의 전제, 기회와 주권은 AI 도입으로 인한 혜택을 전 국민에 환원하는 구조
- 안전 강화, 전 국민 AI 리터러시, 중소기업 도입·상업화 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2,000억 달러 추가 경제성장, 25만 개 신규 AI 일자리 창출, AI 도입률 60% 달성, 청년 대상 최대 9만 개 AI 일자리 및 현장실습 기회 제공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
- 본고는 캐나다 AI 국가전략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

01 캐나다 AI 국가 전략의 개요

- 2026년 6월 4일, 캐나다는 새로운 국가 AI 전략(AI for All)을 공식 발표
 - * ISED(2026), "Canada's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: AI for All", Cat. No. lu4-458/2026E-PDF
 - 캐나다는 G7 내 최고 수준의 디지털 부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, AI 대규모 도입은 가장 더딘 국가 중 하나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
 - 향후 5년간 신규 법안·투자·프로그램을 도입, '신뢰(Trust)·기회(Opportunity)·주권(Sovereignty)' 3대 원칙을 축으로 추진
- 3대 원칙별 주요 추진 내용
 - (신뢰) Pillar 1) 규칙과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AI의 위험·피해로부터 국민 보호
Pillar 6)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 협력해 국제 AI 공동체와 글로벌 표준 형성
 - (기회) Pillar 2) 국민의 AI 리터러시와 접근성을 제고하여 AI 참여·수혜 역량 강화
Pillar 3) 캐나다 기관·기업을 통해 AI 도입을 양질의 일자리·경제활동·공공서비스로 연결
 - (주권) Pillar 4) 컴퓨팅·데이터·인재·인프라 등 AI 주권 수호를 위한 기반 구축
Pillar 5) 자국 AI 기업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챔피언으로 육성
- 이를 통해 5년간 2,000억 달러 추가 경제성장 및 25만 개 신규 AI 일자리 창출, AI 도입률 60% 달성, 청년 대상 최대 9만 개 AI 일자리 및 현장실습 기회 제공 등 주요 목표 제시
 - (AI 도입 확대) 기업 AI 도입률 12%(현재) → 60%(2034), 중소기업(이하 SMEs) 중심
 - (일자리 확보) AI 도입으로 2031년까지 최대 25만 개 신규 일자리, 9만 개 AI 관련 청년 일자리 및 직무 체험 기회 창출
 - (경제효과)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GDP 3%(약 2,000억 달러) 증대 기여
 - (역량) 100만 고등교육생 대상 AI 리터러시 도달, 교사 3,000명 이상 양성, 전 고등교육생에게 검증된 개인용 AI 도구 이용 보장
 - (인프라·보건) 2031년까지 세계적 수준 슈퍼컴퓨터 구축, 보건 분야 첫 AI 미션에 2억 달러 투입
- 본고는 캐나다의 AI 국가전략의 주요 내용을 소개

02 주요 내용

I 추진 배경

- (AI의 전략적 부상) AI가 경제성장·생산성·산업역량·지정학적 영향력의 근본 동력으로 부상, 선도국이 글로벌 시장·기술표준·공급망을 주도하는 구조 형성
- (캐나다 현황) 세계적 연구 리더십 등 구조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도입(adoption) 격차와 주권·인프라 취약성이 확인
 - (강점) 현대 AI 발상지, 세계적 연구 역량 보유, 청정 전력망·한랭 기후 등 인프라 우위, G7 등 신뢰받는 국제 위상
 - (약점) 기업 AI 도입률은 12%에 불과하며 SME AI 도입률은 약 8% 수준에 불과*, AI 교육·리터러시는 47개국 중 44위·AI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42위 수준
- * 노르딕(29~42%)·독일(26%)
- (대응 필요성) AI를 도입·구축·통치하는 능력이 번영·회복력·주권을 좌우함에 따라 역량과 도입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
 - 의견 수렴 11,000건 이상, 28인 전문가 태스크포스 운영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 반영

I 전략의 비전 및 기본 체계

- (비전) “모두를 위한 AI(AI for All)”: AI가 캐나다의 번영·안녕·문화·공동체 증진의 도구로서 작동하도록 함
- (기준점(North Star)) 신뢰(Trust)를 핵심 원칙으로 설정
 - 신뢰 확보가 AI 도입의 전제가 되며, 기회와 주권이 AI 도입의 혜택을 전 국민에게 환원하게 하는 구조
- (3대 축과 6대 Pillar) 신뢰·기회·주권의 3대 축 아래 6대 Pillar로 구성
 - (신뢰) Pillar 1(자국민 보호·민주주의 수호), Pillar 6(파트너십·글로벌 동맹)
 - (기회) Pillar 2(국민 역량 강화), Pillar 3(공유 번영 동력화)
 - (주권) Pillar 4(주권적 AI 기반 구축), Pillar 5(자국 챔피언 기업 육성)
- (역동성) 기술·사회·지정학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동적 전략 지향

I 6대 Pillar 별 추진 과제 및 핵심 조치

가. 자국민 보호·민주주의 수호(Pillar 1: PROTECTING CANADIANS AND SAFEGUARDING OUR DEMOCRACY)

- (민주주의·안전·프라이버시 강화) 캐나다는 안전(safety)을 가장 근본적인 형태의 신뢰이자 폭넓은 도입의 전제로 규정하고, 시민·노동자·제도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기술은 도입하지 않는다는 인식 하에 ‘보호가 곧 속도’라는 기조를 제시. 이를 위해 법에 기반한 안전우선(safety-first) 접근으로 민주주의·안전·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
 - (프라이버시법 현대화) 딥페이크·알고리즘 편향 등 신종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프라이버시를 기본권으로 명문화하고 아동 정보를 착취·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개인의 데이터 통제권을 강화
 - (온라인 안전법) 디지털 환경에서 시민·아동·소비를 보호하는 온라인 안전법을 도입, 특히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을 제공하고 챗봇 상호작용의 안전성을 확보
 - (선거·민주제도 보호) 허위정보와 외국의 선거 개입이 민주적 무결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선거·민주적 제도를 보호하는 대응체계 마련
 - (정부 개인정보 사용 규율) 정부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서도 「프라이버시법」검토를 지속하여 투명성·국제표준과의 정합성 확보
- (AI 인프라 안전성·신뢰성 확보) 에이전트형(agentive) AI 확산에 대비해 AI 인프라의 안전성·신뢰성을 확보하는 조치 병행
 - (AI 안전연구소 확장) 5,000만 달러를 투자해 위험추적·기술연구·모델 평가 역량을 확장
 - (투명성·인증 강화) AI 생성콘텐츠 워터마킹을 추진하고,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식별을 위한 ‘캐나다 신뢰 AI 인증’을 마련하며 표준위원회 AI 프로그램을 지원
 - (사이버·국가안보 협력) 프런티어 AI 기업·국제 파트너와 선제 협력하여 첨단 AI발 사이버·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시민과 핵심시스템을 보호

나. 국민 역량 강화(Pillar 2: EMPOWERING CANADIANS)

- (기초 리터러시/AI 스킬 국가) 국민이 AI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낄 때 국가가 번영한다는 전제 하에, 역량 강화를 리터러시·기회·참여의 3차원으로 구조화하고, 이를 토대로 AI 기술 국가(AI-Skills Nation) 실현을 위한 기초 리터러시 확충을 추진
 - (국가 AI 리터러시 이니셔티브) 전 국민이 접근 가능한 AI 입문교육을 제공, AI 리터러시 콘텐츠를 100만 명의 입문단계 고등교육생에게 제공하고 학습키트를 활용하는 교사 3,000명 이상을 교육

- (신뢰 AI 에이전트 제공) 모든 고등교육생이 신뢰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에 접근하도록 보장하여 차세대 노동자와 연구자에게 개인화된 도구를 제공
- (포용·취업 연계) 도서관·지역단체를 파트너로 농촌·외딴·북부까지 도달하고, 잡뱅크(Job Bank)* AI 매칭 현대화(5,000만 달러)와 CanCode**(3,000만 달러)로 취업·청소년 교육을 연계
 - * Job Bank: 캐나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구직·구인 플랫폼(한국의 고용24에 해당)
 - ** CanCode: 비영리기관을 통해 학생과 교사의 디지털 역량(코딩, AI, 디지털 기술 활용 등) 교육을 지원하는 캐나다 정부 프로그램
- (노동·취업 연계) AI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2031년까지 25만 개 AI 관련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응용 인력기술을 확충
 - (직무 체험 기회 제공) 학생 직무 체험(4.5만 개)·성공기술 프로그램(Skills for Success Program, 3.5만 개)·Mitacs ADOPT·AI+X*(1.0만 개) 등 최대 9만 개 기회를 창출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
 - * Mitacs: 대학과 산업을 연결해 산학협력 인턴십·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캐나다 비영리 인재양성 기관. ADOPT·AI+X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AI 도입 및 융합형 AI 인재 양성을 지원
 - (재교육·포용) 경력 중반·숙련기능직 재교육을 칼리지·폴리테크닉 중심으로 확대하고, AI 충격에 먼저 노출되는 여성 종사자 비중이 높은 분야의 AI 리터러시를 제고
 - (AI 영향 평가)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캐나다 통계청의 인공지능 및 기술 측정 프로그램(Artificial Intelligence and Technology Measurement Program)을 활용하여 AI가 사회, 노동 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·평가
- (선주민 주도 AI) 선주민(퍼스트네이션·메티스·이누이트) 언어와 문화를 보호, 선주민 데이터 자기결정권, 선주민 주도 AI 이니셔티브 지원
- (정체성·문화·포용) 프랑스어 보호 도구·창작기술 프로그램(5,000만 달러)·접근성 표준·성별기반분석플러스(GBA+)* 적용으로 AI 시스템이 캐나다의 정체성·문화·포용을 반영하도록 함
 - * GBA+(Gender-Based Analysis Plus): 정책·사업이 성별·연령·인종·장애·소득 등 다양한 정체성 집단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설계 단계에서 점검하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분석 도구

다. 공유 번영 동력화(Pillar 3: POWERING SHARED PROSPERITY)

- 캐나다는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경제, 즉 이윤뿐 아니라 임금으로 환류되고 전 지역·공동체가 혜택을 누리는 공유 번영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, SME의 AI 도입에 한계
 - SME가 기업의 99%·고용 1,430만 명을 차지함에도 AI를 운영에 통합한 곳은 8곳 중 1곳에 불과

- (SME 도입 가속) SME의 실험적 AI 활용을 본격 도입으로 전환하기 위한 도입 가속 지원을 추진
 - (자금·재정 지원) 캐나다 기업개발은행(BDC)의 LIFT 프로그램*(5억 달러)으로 AI 도구 도입 자금을 지원하고, 지역개발청(RDA)을 통한 지역 AI 이니셔티브(5억 달러)로 전국적 도입·상업화를 가속
 - * BDC(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)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전액 출자한 국책 정책금융기관으로 중소기업 대상 융자·투자·자문을 전담. LIFT는 AI 도입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
 - (진단·세제혜택) AI 준비도 평가도구를 통해 SME가 자사에 적합한 AI 활용사례를 발굴하도록 돕고, SR&ED*·생산성 슈퍼공제**로 민간투자를 촉진
 - * SR&ED(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): 기업의 연구개발(R&D) 지출에 세액공제·환급을 제공하는 캐나다 연방의 대표적 R&D 세제 지원 제도
 - ** 생산성 슈퍼공제(Productivity Super-Deduction): 2025년 예산에서 도입된 세제 조치로,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·기술 투자에 통상보다 큰 폭의 비용 공제를 적용해 투자를 촉진
- (미션 지향적 AI)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임무지향형 AI를 추진하여 생태계를 결집
 - (AI 미션·인력동맹) 보건 분야에 2억 달러를 투입하는 첫 미션을 출범(이후 우선분야 확대)하고, 우선분야* 인력양성 협의체를 구성해 인재 파이프라인을 조율
 - * 우선분야: 보건 및 생명과학, 에너지 및 천연자원, 운송, 농업, 제조 및 로봇공학
- (정부 AI 도입) 정부 스스로 책임 있는 AI 도입의 모범을 보여 공공서비스를 혁신
 - (AI 솔루션 조달·인재 양성) 디지털전환청(Office of Digital Transformation)을 통해 AI 솔루션 조달을 가속하고, 총리실 주도 혁신 펠로우 프로그램*으로 내부 기술역량을 구축
 - * 총리실 주도 혁신 펠로우 프로그램(Prime Minister's Innovation Fellows Program) 기술 및 AI 전문가를 연방 공공 서비스에 직접 채용 및 배치하여 내부 역량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공공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며 정부 조달을 현대화하는 프로그램

라. 주권적 AI 기반 구축(Pillar 4: BUILDING THE CANADIAN SOVEREIGN AI FOUNDATION)

- 캐나다는 AI 주권이 ①컴퓨팅·클라우드·연결성 ②데이터 ③인재의 3대 토대에 의존한다고 보고, 그 핵심 상당 부분이 외국에 의존하는 현 구조를 전략적 취약점으로 진단
- (주권적 컴퓨팅·클라우드·연결성 확충) 2030년까지 상업용 5.5GW 컴퓨팅 수요가 전망됨에 따라 주권적 컴퓨팅·클라우드·연결성을 확충
 - (공공 슈퍼컴퓨터 구축) 세계적 수준의 공공 슈퍼컴퓨터를 구축해 연구자·중소기업에 안전한 주권 컴퓨팅을 제공
 - (컴퓨팅·클라우드 확장) 정부·산업 AI 워크로드와 민간자본을 유인해 2030년 850MW에서 최대 2.3GW까지 확장(수백억 달러 투자)

- (연결성 확보) (연결성) 광섬유·위성 연결성을 확장해 회복력 있는 주권적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
- (데이터 활용) 데이터를 전략적 국가자산으로 관리하되, 보건 분야를 우선 적용
 - (보건 데이터 활용 확대) 보건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*, VITAL** 5개 주 확대로 보건 데이터 활용을 확대
 - * 보건 데이터 스페이스(Health Sector Data Space): 흩어져 있는 캐나다의 보건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해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데이터 연계 기반(플랫폼)
 - ** VITAL: 여러 주의 병원 임상데이터를 연결하는 범캐나다(pan-Canadian) 보건데이터 플랫폼. 심장질환 예측·패혈증 탐지 등 AI 기반 진단·연구를 뒷받침하며, 80개 이상 캐나다 기업이 이 데이터를 활용
- (인재 정착) 세계적 인재 유치 경쟁 심화에 대응해 핵심 인재를 국내에 정착
 - (연구 인재 확충) 캐나다 고등연구원(CIFAR) AI 의장을 130명에서 약 200명으로 확대하고 국가 AI 연구소 네트워크를 강화
 - (입국·정착 지원) 글로벌 인재 스트림을 확대해 고숙련 AI 인력의 입국·정착을 가속하고 영주권 조치를 정비해 인재를 유치

마. 자국 챔피언 기업 육성(Pillar 5: SCALING CANADIAN AI CHAMPIONS)

- (투자 플라이휠 구축) 캐나다는 세계적 연구 강국임에도 유망 기업이 자본·고객을 좇아 국외에서 성장*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본국 정착 조건의 전환을 제시. 이에 창업·초기 투자한 이들이 성과를 제대로 보상받는 투자 선순환(플라이휠)을 재구축
 - * 캐나다 주도 스타트업의 약 70%가 국외 본사
 - (성장기금 마련 및 정부 지분 참여) 캐나다 기술성장기금(5억 달러)으로 스케일업 자본격차를 메우고, 정부의 유망기업 지분 참여를 허용
 - (재투자·민간 VC 촉진·앵커고객화) 2026 예산까지 성공 수익의 재투자 메커니즘을 모색하고, 17.5억 달러로 민간 VC를 촉진하며, 연방정부가 국산 AI의 핵심 초기 구매자(앵커고객)로 나서도록 함(Buy Canadian 정책 활용)
- (AI 성과 상업화) SME의 AI 성과를 상업화하도록 AI 가치사슬을 본국에 유지
 - (컴퓨팅 지원) 컴퓨팅 접근기금(Compute Access Fund)을 확대하여 SME의 자국 AI 컴퓨팅 인프라 이용을 지원(7억 달러 규모)
 - (신진 AI 창업가 육성) 국가 AI 연구소 상업화 프로그램에 1억 3,000만 달러를 투입(입주창업가 Founders-in-Residence 포함)해 신진 AI 창업가를 육성
 - (연구→시장 경로 단축) 혁신 프로그램 전반을 점검해 연구에서 시장까지의 경로를 더 짧고 명확하게 정비

- (IP 보호·상업화) 지식재산(IP) 지원 프로그램(Elevate IP, IP Assist(1억 5,900만 달러))으로 IP를 보호하고 무형자산의 상업화를 지원
- (파운데이션 모델) 자국 파운데이션 모델을 정착·수출하고 안전을 핵심 설계 원칙으로 반영한 파운데이션모델 연구를 지원하여 이를 전략자산화

바. 파트너십·글로벌 동맹(Pillar 6: BUILDING TRUSTED PARTNERSHIPS AND GLOBAL ALLIANCES)

- (주권기술동맹) 캐나다는 현재의 AI가 패권국·하이퍼스케일러가 지배하는 규모의 게임임을 지적하고, 종속·의존 위험에 대응할 신뢰 가능한 대안 제시를 목표로 설정. 이에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국가 연합인 주권기술동맹을 주도
 - (캐나다-독일 주권기술동맹·확장) 공통 AI 모델·디지털 인프라·자본·공동연구를 공유하고 안전·평가 표준을 통일. 향후 동맹을 확장해 안전하고 상호운용 가능한 AI 역량을 가능케 하고, 국내 챔피언을 위한 조달 기회를 창출
- (오픈소스 AI) 회복력과 선택권 확보를 위해 오픈소스 AI를 발전시키고 글로벌 다자 이해관계자 노력을 주도
- (국제 파트너십 확대) 국제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협력을 추진
 - 유럽(독·영·프·EU)·인도태평양(호주·인도·일본)·중동(UAE·카타르·사우디) 전반에서 협력, 최근 1년 20건·1,000억 달러 투자약정(AI 협력 11건)

I 주요 목표

- 국민·아동 보호: 개인정보 보호·AI 투명성 제고로 AI 위험·온라인 피해 차단
- AI 리터러시 교육: 전 국민 무료 제공(고등교육생 100만 명·K-12 교사 3,000명 이상, 2배 확대)
- AI 에이전트 접근권: 전 고등교육 학생 대상 보장
- 청년 일자리: 최대 9만 개 AI 일자리·현장실습 창출(2031년), 중소기업·비영리 조직 지원
- 신규 일자리: AI 도입을 통해 최대 25만 개 창출(2031년)
- AI 도입률: 12%→60%(2034년), 중소기업·기업 도입 지원 강화
- GDP 효과: +3%(약 2,000억 달러), 핵심 분야 AI 상업화·노동생산성 기반
- AI 미션 프로그램: 고영향 공익 프로젝트 추진, 보건 분야 2억 달러 우선 투입

- 슈퍼컴퓨터: 세계적 수준 구축(2031년, 주권적 인프라 강화)
- 컴퓨트 접근 기금: 중소기업 공공 컴퓨팅 접근성 제고로 상업화·도입 촉진
- 다자동맹: 핵심 AI·기술의 주권적 자율성 확보, '의존→회복력' 전환

표 1 | 6대 Pillar별 추진 과제

구분	추진과제 및 핵심조치	예산(CAD)	목표(성과)
1. 자국민 보호· 민주주의 수호	[민주주의·안전·프라이버시 강화] - 프라이버시법 현대화 - 온라인 안전법 - 선거·민주제도 보호 - 정부 개인정보 사용 규율 [AI 인프라 안전성·신뢰성 확보] - AI 안전연구소 확장 - 투명성·인증 강화 - 사이버·국가안보 협력	- AI 안전연구소 확장: 5,000만 달러	- 아동·시민의 온라인 피해 보호 -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AI 투명성 제고 - 신뢰AI 인증도입 - 선거·민주제도 보호
2. 국민 역량 강화	[기초 리터러시/AI 스킬 국가] - 국가AI 리터러시 이니셔티브 - 신뢰AI 에이전트 제공 - 포용·취업 연계 [노동·취업 연계] - 직무 체험 기회 제공 - 재교육·포용 [친노동자 산업AI] - 노동자 중심의 산업 AI 지향 [선주민 주도 AI] - 선주민 언어, 문화, 데이터 자기결정권 지원 [정체성·문화·포용] - 프랑스어 접근성·GBA+	- 잡뱅크 AI 매칭 현대화: 5,000만 달러(2025예산, 5년) - CanCode: 3,000만 달러 - 창작기술 프로그램: 5,000만 달러	- 고등교육생 100만 명 AI 리터러시 도달 - 교사 3,000명 이상 양성 - 청년 일경험(직무체험) 최대 9만 개 (2031)
3. 공유 번영 동력화	[SME 도입 가속] - 자금·재정 지원 - 진단·세제혜택 [미션 지향적 AI] - AI 미션(보건 우선)·인력동맹 [정부 AI 도입] - AI 솔루션 조달·인재 양성	- LIFT 프로그램(BDC): 5억 달러 - 지역 AI 이니셔티브(RDA): 5억 달러 - 첫 AI 미션(보건): 2억 달러	- 기업 AI 도입률 12% → 60% (2034)

구분	추진과제 및 핵심조치	예산(CAD)	목표(성과)
4. 주권적 AI 기반 구축	[주권적 컴퓨팅·클라우드·연결성 확충] - 공공 슈퍼컴퓨터 구축 - 컴퓨팅·클라우드 확장 - 연결성 확보 [데이터 활용] - 보건 데이터 활용 확대 [인재 정책] - 연구 인재 확충 - 입국·정착 지원	- 보건 데이터 스페이스: 1억 달러 - VITAL 5개 주 확대: 1억 달러 - AI 컴퓨팅: 기존 20억 달러+ 투자 지속 이행 - (연계) 인재유치전략: 17억 달러 (2025예산)	- 상업용 컴퓨팅 수요 5.5GW(2030) 대응 - 세계적 수준 공공 슈퍼컴퓨터 구축(2031) - 컴퓨팅 850MW(2030)→최대 2.3GW 확장 - CIFAR AI 의장 130명→약 200명
5. 자국 챔피언 기업 육성	[투자 플라이휠 구축] - 성장기금 마련 및 정부 지분 참여 - 재투자·민간 VC 촉진·앵커고객화 [SME 상업화] - 컴퓨팅 지원 - 신진 AI 창업가 육성 - 연구→시장 경로 단축 - IP 보호·상업화 [파운데이션 모델] - 파운데이션 모델 정착·수출	- 캐나다 기술성장기금: 5억 달러 - 컴퓨팅 접근기금 확대: 7억 달러 - 연구소 상업화 프로그램: 1.3억 달러 - Elevate IP·IP Assist: 1.59억 달러 (2025예산) - 민간 VC 촉진: 17.5억 달러(2025 예산)	- 챔피언 기업 본국 정착·글로벌 확장 - 파운데이션 모델 정착·수출 (정성)
6. 파트너십· 글로벌 동맹	[주권기술동맹] - 주권기술동맹(캐나다·독일)·확장 [오픈소스AI] - 오픈소스AI 발전·다자 노력 주도 [국제 파트너십 확대] - 국제 파트너십(유럽·인태·중동)		- 신규 경제·국방 파트너십 20건 체결 - 외국인 투자 약 1,000억 달러 약정 확보 - 이 중 AI 협력 11건(4개 대륙) (정성)

자료: ISED(2026)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

03 정책 시사점

- 캐나다는 안전·규제를 혁신의 제약이 아닌 도입의 전제로 설정하고, AI 도입률과 리터러시를 핵심 과제로 명시하고 있음
 -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기술은 사용되지 않는다는 인식 하에, 프라이버시·온라인 안전·AI 안전연구소 등 보호장치를 도입을 막는 비용이 아닌 도입을 여는 토대로 규정
 - 기업의 AI 도입률 12%·SME 8%·리터러시 44위라는 지표에 근거해 중소기업의 AI 기술 도입과 상업화를 전략의 중심에 배치

- 전 국민 리터러시와 일자리를 잇는 연계 모델은 국내 AI 활성화 정책에 참고할 수 있음
 - 무료 리터러시 교육을 신뢰 AI 에이전트 접근·직무 체험·재교육과 한 흐름으로 묶어 ‘교육 → 활용 → 일자리’의 연계를 지향하였으며, 입문교육(고등교육생 100만 명)부터 직무 체험(최대 9만 개)까지 생애·단계별 경로를 설계
- SME의 AI 도입·상업화를 겨냥한 수요측 패키지형 지원 모델도 시사점을 제공
 - AI 도입 장애요인 분석에 기반, SME의 AI 기술 도입 활성화를 위해 금융(LIFT)·준비도 진단도구·세제(SR&ED·생산성 슈퍼공제)를 종합 지원으로 제시
 - 정부를 앵커고객으로 활용(Buy Canadian)해 초기 수요를 창출하는 등 공급뿐 아니라 수요 측면을 함께 설계

참고문헌

ISED(2026), “Canada’s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: AI for All”, Cat. No. lu4-458/2026E-PDF

KISDI Perspectives 발간 내역

KISDI Perspectives는 국내외 정보통신미디어 관련 주요 정책 및 동향을 분석한 리포트입니다.

문의: 노희윤 부연구위원(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디어정책연구실, hyooooon@kisdi.re.kr, 043-531-4042)